

NEW ETF Line-up

더제이, 삼성, 키움자산, 하나, 한국, 한화자산운용
ETF 7종목 상장

7월 4주차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글로벌 ETF 김진영 jykim@kiwoom.com
RA 조호준 hojun.cho@kiwoom.com



☒ New ETF 개요

상장 개요

'25.7.22(화) 국내 증시에 ETF 7종목 신규 상장

상품 요약

▲ 더제이 중소형포커스액티브 (0053M0)

국내 상장 성장성이 있는 중소형주를 선별하여 투자하는 액티브 ETF

▲ KODEX TDF2060액티브 (0082V0)

글로벌 주식과 국내 채권에 투자하며 생애주기에 맞춰 주식·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TDF ETF

▲ KIWOOM 미국테크100월간목표혜지액티브 (0084D0)

시장상황에 따라 위험자산(美기술주)·안전자산(美단기국채ETF) 비중을 조정하여 하방위험을 관리하는 액티브 ETF

▲ 1Q 미국메디컬AI (0083S0)

미국에 상장된 제약, 의료장비/용품 제조,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의 종목 중 '메디컬AI' 분야의 기업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H)

(0085P0 / 0085N0)

미국 국채 10년물에 투자하는 환노출 및 환헤지형 액티브 ETF

▲ PLUS 미국로보택시 (0078V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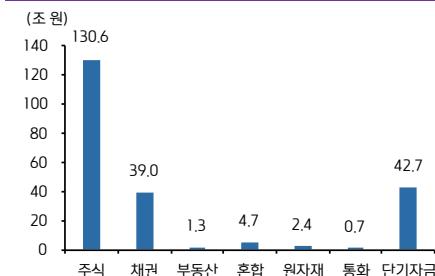
로보택시 산업과 관련된 미국 상장 자율주행 기술 기업 및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ETF 시장 Snapshot

구분	'25.07.11~07.18	'25.07.04~07.11
상장 종목 수	995 개 (▲3 개)	992 개
순자산 총액	221.4 조 원 (▲4.4 조)	217 조 원
총 거래량	36.2 억 주 (▼0.5 억)	36.7 억 주
총 거래대금	27.0 조 원 (▲1.1 조)	25.9 조 원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07.18 기준

국내 ETF 유형별 순자산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07.18 기준

신규 출시 ETF 개요 (1)

구분	더제이 중소형포커스액티브	KODEX TDF2060 액티브	KIWOOM 미국테크 100 월간목표해지액티브
코드	0053M0	0082V0	0084D0
상품 유형	주식형	혼합-재간접형	혼합-파생재간접형
운용사	더제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기초(비교)지수	코스피 200 중소형주지수	Samsung Korea Target Date 2060 Index	Akros U.S. Tech 100 Protective Allocation Monthly Index
복제방법	실물(액티브)	실물(액티브)	실물(액티브)
총보수 (운용보수)	0.685% (0.60%)	0.30% (0.279%)	0.49% (0.43%)
연금투자 가능 여부	개인연금 100%, 퇴직연금 70%	개인연금/퇴직연금 100%	개인연금 100%, 퇴직연금 70%
구성종목 수	100 종목	14,977 종목	110 종목
정기 변경	연 2 회 (6, 12 월 KOSPI200 정기변경일)	연 4 회 (3, 6, 9, 12 월)	연 4 회 (3, 6, 9, 12 월) 매일 신규 해지비율과 현재 해지비율간 차이 5% 이상일 때 실시

자료: KRX, 각사,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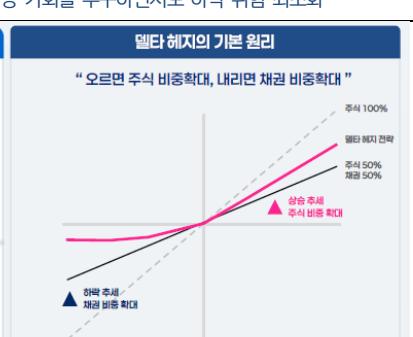
신규 출시 ETF 개요 (2)

구분	IQ 미국메디컬 AI	ACE 미국 10년국채액티브 / ACE 미국 10년국채액티브(H)	PLUS 미국로보택시
코드	0083S0	0085P0 / 0085N0	0078V0
상품 유형	주식형	채권형	주식형
운용사	하나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기초(비교)지수	KEDI 미국메디컬 AI 지수	ICE U.S. Treasury 7-10 Year Bond Index (Total Return)	KEDI 미국로보택시 지수
복제방법	실물(파시브)	실물(액티브)	실물(파시브)
총보수 (운용보수)	0.49% (0.43%)	0.20% (0.16%)	0.49% (0.439%)
연금투자 가능 여부	개인연금 100%, 퇴직연금 70%	개인연금/퇴직연금 100%	개인연금 100%, 퇴직연금 70%
구성종목 수	15 종목	12 종목	12 종목
정기 변경	연 4 회 (3, 6, 9, 12 월)	매월 마지막 영업일	연 4 회 (미국시장 기준 3, 6, 9, 12 월)

자료: KRX, 각사, 키움증권 리서치

| 신규 출시 ETF 한 눈에 보기

ETF 명 (코드)	KODEX TDF2060액티브 (0082V0)																											
개요	- 글로벌 주식과 국내 채권에 투자하며 생애주기에 맞춰 주식·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TDF ETF																											
특징	- 글로벌 주식 비중 약 80%로 30년 이상 투자 기간이 남은 투자자와 적극적 투자 성향의 투자자에게 유리																											
비교지수	- Samsung Korea Target Date 2060 Index																											
유니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S&P Global BMI Index (PR) 中 S&P Dow Jones Indices Country Classification에 따라 선진국 혹은 신흥국으로 분류된 국가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시가총액 USD 100 mil 이상, 유동성 USD 12개월 MVTR(Median Value Traded Ratio), 6개월 MDVT(Median Daily Value Traded) 필터 총족 → 12개월 MVTR(%), 6개월 MDVT(\$mil) 필터는 신흥국의 경우 각각 10%, \$0.1mil, 선진국의 경우 20%, \$0.25mil - 채권: S&P South Korea Sovereign Bond Index (T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잔액 KRW 1조원 이상, 정기변경일 기준 잔존만기 1개월 이상인 종목 																											
투자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글로벌 주식 비중으로 장기 성장에 집중: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자산. 과거 닷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수많은 경제 위기에서도 글로벌 증시는 혁신과 성장으로 상승을 지속해옴. 동 ETF는 글로벌 주식 비중을 약 80%로 가져가며 장기 성장에 집중. 은퇴까지 시간이 긴 투자자와, 적극적 투자 성향의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품 ▶ 전 세계 48개국에 분산 투자: 48개국의 1만 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여 불확실성을 낮추고, 글로벌 성장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는 높임. VT, ACWI ETF를 활용해서 미국,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부터 신흥국까지 전 세계 주식에 50%를 투자. 동시에 장기 수익률로 입증된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에 30% 추가로 투자 ▶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100% 한도로 투자 가능: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투자가 주식/채권 비율에 신경 쓰지 않고 알아서 투자해주는 TDF ETF로서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을 확대시키는 글라이드패스를 통해 편리한 운용이 가능. <u>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한 적격 TDF</u> 																											
참고자료	<p>KODEX TDF2060 액티브 글라이드 패스: 생애 주기에 맞춘 자동 리밸런싱 예시</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25년</th> <th>'30년</th> <th>'35년</th> <th>'45년</th> <th>'55년</th> <th>'60년</th> <th>'65년</th> <th>'70년</th> </tr> </thead> <tbody> <tr> <td>글로벌주식</td> <td>80%</td> <td>80%</td> <td>72%</td> <td>56%</td> <td>40%</td> <td>32%</td> <td>22%</td> <td>20%</td> </tr> <tr> <td>국내채권</td> <td>20%</td> <td>20%</td> <td>28%</td> <td>44%</td> <td>60%</td> <td>68%</td> <td>78%</td> <td>80%</td> </tr> </tbody> </table> <p>자료: 삼성자산운용</p>	구분	'25년	'30년	'35년	'45년	'55년	'60년	'65년	'70년	글로벌주식	80%	80%	72%	56%	40%	32%	22%	20%	국내채권	20%	20%	28%	44%	60%	68%	78%	80%
구분	'25년	'30년	'35년	'45년	'55년	'60년	'65년	'70년																				
글로벌주식	80%	80%	72%	56%	40%	32%	22%	20%																				
국내채권	20%	20%	28%	44%	60%	68%	78%	80%																				

ETF 명 (코드)	KIWOOM 미국테크100 월간목표해지액티브 (0084D0)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상황에 따라 위험자산(美기술주) · 안전자산(美단기국채ETF) 비중을 조정하여 하락 위험을 관리하는 액티브 ETF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델타 해지 원리를 활용해, 미국 주식 및 채권 비중을 자동 조절함으로써 옵션 없이 프로텍티브 풋(Protective Put) 옵션 전략을 구현 	
비교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Akros U.S. Tech 100 Protective Allocation Monthly Index(TR) 	
유니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수산출기관인 Akros가 공표, 산출하는 미국 기술주와 미국 단기채권 혼합지수. 1) 미국테크 100 지수(Akros U.S. Tech 100 Index), 2) 미국단기채권 지수(Akros U.S. T-Bill Index)의 편입종목으로 구성 각 지수에의 투자비중인 해지비율(1-해지비율)이 결정되며, 위험자산(안전자산)에는 1-해지비율(해지비율)을 적용, 그 하위종목에는 하위지수 내 비중으로 배분하여 최종 투자 비중이 결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 NYSE, NASDAQ 상장 보통주, 3개월 평균거래대금 \$100만 초과, Akros 산업분류 체계 상, 제조/정보/과학기술 서비스 등에 속하고 재무 및 보험/부동산 등에 속하지 않는 종목 中 유동시가총액 Top 150개 → 안전자산: 미국거래소 상장 ETF 中 잔존만기 3년 이하 미국 국채 투자 성과 추종, AUM \$1억, 3개월 평균거래대금 \$3백만 이상 	
투자포인트	<p>▶ 미국 기술주(성장성)와 미국 채권(방어력)으로 스마트한 투자비중 조절: 미국 기술주 100종목의 성장성을 추구하면서도, 옵션 복제(델타해지) 기법과 동적 자산배분을 활용하여 월간 단위로 하락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옵션을 실제로 매수하지 않되, 델타해지 원리를 활용해 '가상의 옵션 효과'를 구현. 즉, 매월 말 기준으로 기초지수(미국테크100)의 증가를 바탕으로 악월 방어선을 새롭게 설정, 이 행사가격 기준의 "가상 풋옵션"을 복제. 델타해지 공식(블랙-숄즈 모형 기반)으로 산출된 해지비율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매일 재조정(지수 상승 시 주식비중 확대, 하락 시 채권 비중 확대)하여, 실제 Protective Put 전략과 유사한 방어효과를 추구 (거래 비용 최소화를 위해 자산 비중의 변화가 5%를 넘는 경우에 실제 매매 실행)</p> <p>▶ 변동성은 낮추고, 위험대비 수익률은 높임: 2008.01~2025.05 구간 백테스팅 결과, 동 ETF의 연평균 수익률 9.8%, 연평균 변동성 11.5%로 위험대비 수익률 0.85 기록. 동 기간 나스닥100(TR) 0.67, S&P500(TR) 0.52, 금(Gold) 0.46, 미국채 15년 0.23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낮은 변동성으로 효율적인 장기 우상향 성과 추구 가능함을 보여줌. 또한, 2007년 이후 월별 시장 하락/상승 구간에서 월간 성과 비교 시, 하락 월에서의 동 ETF 평균 수익률은 -3.9%로 나스닥100(TR) -10.7% 대비 방어 효과가 커고, 상승 월에서의 평균 수익률은 +7.5%로 나스닥100(TR) +10.8%의 70%에 준하는 시장 참여 효과를 나타냄. 즉, 시장 하락 구간에서의 손실 해지, 상승 구간에서의 상승 참여 효과가 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p> <p>▶ 주식 배당/금리 수익률을 동시에 누리는 안정적인 월 배당 투자: 주식(미국 기술주) 비중 평균 60%, 채권(미국 단기채) 비중 평균 40% 보유로 주식 배당과 금리 수익 동시에 발생. 배당금은 매월 말일 기준 지급</p>	
참고자료	<p>미국 기술주와 미국 채권을 동적으로 비중 조절하여, 상승 기회를 추구하면서도 하락 위험 최소화</p>  <p>"오르면 주식 비중확대, 내리면 채권 비중확대"</p>  <p>자료: 키움투자자산운용</p>	

ETF 명 (코드)	1Q 미국메디컬AI (0083SO)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 상장된 제약, 의료장비/용품 제조,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의 종목 중 '메디컬AI' 분야의 기업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상장기업 중 메디컬 AI 키워드 간 관련성을 절대 평가, 상대 평가 과정을 거쳐 의료AI 관련도가 높은 기업 최대 15개 선별하여 투자 												
기초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I 미국메디컬AI 지수 												
유니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거래소 상장 종목 中 시가총액 \$1bn,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1mn 이상 - KEDI 산업분류 기준 상, '제약·의약품 개발 제조업,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의료 장비 및 용품 제조업,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출판업, 정보 플랫폼 서비스업(데이터 검색·관리·아카이브), 과학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 외래진료센터, 진단·검사 전문 실험실 서비스에 해당하는 종목' - Medical AI를 키워드로 유사도 점수를 산출, 유사도 점수 및 비중 점수 산출하여 최종 편입 종목 선정 												
투자포인트	<p>▶ AI도입으로 폭발적인 성장 기대되는 헬스케어: 정밀의료, AI신약개발, 로봇수술 중심으로 2030년까지 CAGR 기준 정밀의료는 36%, AI신약은 30%, 로봇수술 19% 고성장 예상. 유전체 진단 비용의 급감(과거 게놈프로젝트 예산: 30억 달러 → 최근 100달러 수준) +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 발달로 다양한 유전 변이를 한번에 탐지 가능 해짐으로 글로벌 유전체 진단 시장은 지속 성장 예상. 또한 빅파마와 AI신약기업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AI신약 개발 경험과 역량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p> <p>▶ 주요 선도기업들의 메디컬 AI 상용화 완료 또는 근접: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빅파마 및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메디컬 AI 분야 진출 가속화 중. 앤비디아의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지분 투자, 구글의 알파폴드, MS의 의료/헬스케어 AI 출시 등 빅테크 기업들의 영역 확장도 지속 중. 영상 판독, 이미지 분석 등에서 AI가 전문의를 앞선다는 연구 결과들도 다수 발표. AI 기반의 신약개발 과정은 약 6~10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통적인 신약개발 과정이 10~18년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해 개발 과정 대폭 단축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 수술로봇의 수술 횟수 증가세가 지속되며 향후 견조한 수술로봇 시장의 성장세 예상</p> <p>▶ 테크 리더십을 바탕으로 미국을 중심축으로 성장 예상: 미국은 AI 관련 인력, 연구, 개발, 상용화, 스케일 등 AI 경쟁력 지표 다수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국가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과 경제의 혁신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원동력. 생명공학 분야와 스타트업 환경에서도 미국의 주도권은 굳건하며 CRISPR(유전자 편집) 관련 논문 수에서도 미국이 1위를 차지(2018년 기준)</p>												
고성장이 전망되는 메디컬 AI 글로벌 시장	<p>메디컬AI 글로벌 시장 가파른 성장</p> <p>단위: 달러</p> <p>2024년 266.9억 (약 38조7000억) 2034년 6138.1억 달러 (약 891조700억원) 연평균 37% 성장</p> <p>메디컬AI 세부 산업별 성장율</p> <p>세부산업 CAGR</p> <table border="1"> <tr> <td>■ 정밀의료</td> <td>36.23%</td> </tr> <tr> <td>■ 신약개발</td> <td>29.7%</td> </tr> <tr> <td>■ 로봇수술</td> <td>18.9%</td> </tr> <tr> <td>■ 영상진단</td> <td>34.8%</td> </tr> <tr> <td>■ 가상보조, 첫봇</td> <td>24.32%</td> </tr> <tr> <td>■ 기타</td> <td></td> </tr> </table> <p>2021년 \$110억 2023년 \$192억 2025년(E) \$400억 2027년(E) \$674억 2030년(E) \$1,877억</p>	■ 정밀의료	36.23%	■ 신약개발	29.7%	■ 로봇수술	18.9%	■ 영상진단	34.8%	■ 가상보조, 첫봇	24.32%	■ 기타	
■ 정밀의료	36.23%												
■ 신약개발	29.7%												
■ 로봇수술	18.9%												
■ 영상진단	34.8%												
■ 가상보조, 첫봇	24.32%												
■ 기타													
참고자료	<p>자료: 하나자산운용</p>												

ETF 명 (코드)	PLUS 미국로보택시 (0078VO)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보택시 산업과 관련된 미국 상장 자율주행 기술 기업 및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시장을 창출 및 지배하는 기업, 자율주행 핵심 소프트웨어 기업, 최종 수요자와 연결시키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등 피지컬 AI 시대에서 가장 먼저 발전할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투자 																								
기초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I 미국로보택시 지수 																								
유니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또는 ADR -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 3개월 일 평균 거래대금 100만 달러 이상 - KICS 분류상 'Semiconductor and Other Electronic Component Manufacturing', 'Motor Vehicle Manufacturing', 'Web Search Portals, Libraries, Archives, and Other Information Services', 'Motor Vehicle Parts Manufacturing', 'Computing Infrastructure Providers, Data Processing, Web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Services', 'Taxi and Limousine Service'에 해당하는 기업 - 'Robotaxi Software', 'Robotaxi Platform' 두 키워드 바탕 LLM 기법을 활용하여 키워드 점수를 산출. 절대적 기준의 유사도 점수를 기준으로 1차 필터링 후, 상대적 기준의 유사도 점수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투자포인트	<p>▶ 피지컬 AI 시대의 혁명을 이끌 모빌리티: AI의 다음 물결인 '피지컬 AI'는 인간의 반복 노동이 AI 로봇으로 대체되며, 인류 생산성 곡선을 재편하는 중대한 변곡점으로서 작용할 것. 그 중 <u>로보택시는 피지컬 AI 기술의 핵심 역량(인지, 판단, 제어)이 응축된 결과물</u>로서 가장 먼저, 가장 광범위하게 상업적 가치를 증명할 핵심 영역이며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 <u>로보택시 시장은 2033년까지 연평균 약 75% 성장 전망</u>되며 2033년에 4,500억 달러(약 600조 원) 규모로 성장 예상</p> <p>▶ 기술적 변곡점과 경제적 해자를 지닌 로보택시: 현재 주요 기업들은 특정 조건 하에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자율주행 기술 '레벨4' 단계에 진입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 시작. 자율주행 기술에는 V2X 통신, 센서 퓨전,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위한 AI 알고리즘 등 <u>기술 고도화가 필수</u>. 또한 기존 인간 운전 택시에 비해 마일당 운행 비용이 총 88% 정도 절감되는데 이는 '운전자 인건비'의 완전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 이러한 <u>비용 구조의 혁신</u>을 통해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 <u>로보택시는 이제 기술 겸증 단계는 종료되고, 현재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로서 자리</u>를 잡아가고 있음. '어떤 기업이 더 빠르게 확장하고 비용을 절감하는가'에 대한 '규모의 전쟁'이 본격화 중</p> <p>▶ 로보택시 생태계 전반에 투자 가능: <u>로보택시 산업 생태계는 크게 ①자율주행 서비스, ②핵심 소프트웨어, ③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구성.</u> ①알파벳(웨이모), 테슬라, 바이두, 아마존 등 <u>자율주행 선도 기업</u>에 35~45% 투자. ②엔비디아, 위라이드, 모빌아이, 포니AI 등 <u>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지닌 핵심 소프트웨어</u> 기업에 35~45% 투자. ③우버, 리프트, 그랩 등 <u>로보택시를 최종 수요자와 연결시켜주는 모빌리티 플랫폼</u> 기업에 20~30% 투자하여 <u>피지컬 AI 시대 혁신 속에서 가장 먼저 발전할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투자</u></p>																								
참고자료	<p>2033년에 약 6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의 개화</p> <table border="1"> <caption>글로벌 로보택시 시장 규모 전망</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규모 (십억 달러)</th> </tr> </thead> <tbody> <tr><td>'23</td><td>1.7</td></tr> <tr><td>'24</td><td>3.0</td></tr> <tr><td>'25</td><td>5.2</td></tr> <tr><td>'26</td><td>9.1</td></tr> <tr><td>'27</td><td>15.8</td></tr> <tr><td>'28</td><td>27.7</td></tr> <tr><td>'29</td><td>48.3</td></tr> <tr><td>'30</td><td>84.4</td></tr> <tr><td>'31</td><td>147.5</td></tr> <tr><td>'32</td><td>257.7</td></tr> <tr><td>'33</td><td>600</td></tr> </tbody> </table> <p>자료: 한화자산운용</p>	연도	규모 (십억 달러)	'23	1.7	'24	3.0	'25	5.2	'26	9.1	'27	15.8	'28	27.7	'29	48.3	'30	84.4	'31	147.5	'32	257.7	'33	600
연도	규모 (십억 달러)																								
'23	1.7																								
'24	3.0																								
'25	5.2																								
'26	9.1																								
'27	15.8																								
'28	27.7																								
'29	48.3																								
'30	84.4																								
'31	147.5																								
'32	257.7																								
'33	600																								

국내 신규출시 ETF 리스트 (최근 1개월)

상장일	티커	ETF 명	운용자산 (억원)	개요
06/24	0069M0	1Q 미국나스닥 100	236	미국 기술주 중심 100 개 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에 연 0.0055% 저보수로 투자하는 ETF
06/24	0068M0	KODEX 미국 S&P500 버퍼 6 월액티브	527	S&P500 주식 포트폴리오와 S&P500 지수를 기초로 하는 웃/콜옵션 매매를 통해 하락장에서 손실 완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버퍼 ETF
06/24	0061Z0	RISE 단기특수은행채액티브	10,441	잔존만기 6 개월 이하 신용등급 AAA 인 특수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06/24	0072R0	TIGER KRX 금현물	1,046	KRX 금현물에 100% 투자하는 패시브 ETF
06/24	0060H0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957	국내 최초 전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ETF
07/01	0073X0	FOCUS 알리바바미국채커버드콜혼합	82	중국 기술주 알리바바와 만기 20 년 이상 미국채 ETF에 투자하며, 미국채에 타깃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
07/01	0074K0	KoAct K 수출핵심기업 TOP30 액티브	658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수출 성장기업과 수출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07/15	0079X0	ACE BYD 벨류체인액티브	104	중국 전기차 대표기업 BYD 및 자율주행 시스템, 배터리, 부품 등 각 사업 분야 벨류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07/15	0080G0	KODEX K 방산 TOP10	1,017	국내 방산 기업 10 종목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07/15	0080X0	SOL 미국 S&P500 미국채혼합 50	122	미국 S&P500에 50%, 미국 장기국채(잔존만기 7~10 년)에 50%로 혼합 투자하는 ETF
07/15	0080Y0	SOL 조선 TOP3 플러스레버리지	547	국내 조선 산업에 대해 증가하는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여 레버리지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ETF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07.18 기준

국내 ETF 기초자산 유형별 Snapshot (주간)

구분	상장 종목 수	순자산 총액	일평균 거래량
주식	712 개 (▲3 개)	130.6 조 원 (▲3.3 조)	6.9 억 주 (▼1,464 만)
채권	138 개 (0)	39 조 원 (▲2,417 억)	1309 만 주 (▲208 만)
부동산	11 개 (0)	1.3 조 원 (▼28.9 억)	313.3 만 주 (▲61.3 만)
혼합	58 개 (0)	4.7 조 원 (▲1,518 억)	535.9 만 주 (▲31.7 만)
원자재	28 개 (0)	2.4 조 원 (▲320.9 억)	377.7 만 주 (▲9.9 만)
통화	12 개 (0)	0.7 조 원 (▼29.4 억)	68.5 만 주 (▼14.8 만)
단기자금	36 개 (0)	42.7 조 원 (▲7,553 억)	281.6 만 주 (▲6.2 만)
종합	995 개 (▲3 개)	221.4 조 원 (▲4.5 조)	7.2 억 주 (▼0.2 억)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07.18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